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② 26. ③ 27. ②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③ 33. ① 34. ⑤ 35. ① 36. ③ 37. ⑤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③ 44. ① 45. ④

[1~3]  
 1. 협상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모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협상 참여자인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직원 수’와 ‘하수 처리’, ‘지역 농산물 구입’이라는 협상 안건에 대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회사 측과 시청 측은 회사의 지역 주민 ‘채용 인원’ 수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고 있다. 즉,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회사 측의 발언과 시청 측의 ‘알겠습니다~수용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에서 요구 수용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처리를 하겠습니다.’에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 ⑤ 회사 측과 시청 측 각각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2. 협상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의 발화 의도나 발화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회사 측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지만,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다.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가 아니며, ‘㉣’도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가 아니다.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며,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다.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가 아니며, ‘㉧’도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로 볼 수 없다.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들의 공통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과 ‘㉡’은 모두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다. 즉, ‘㉠’의 경우, 회사 측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10%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10% 충원은 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시청 측도 지역 주민이 회사에 채용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 경우, 제안하는 시청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도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과 ‘㉡’ 모두 제안하는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화는 고호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미술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자료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나)의 1에서는 관광객들이 희망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적 실태를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의 자료에서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실태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에서 생태 보전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에 관한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첫째 문장), 관광지의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셋째 문장)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 ~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 내용으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룰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의 참여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고, (나)의 2에서는 '주민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다)의 첫째 사례에서는 생태 관광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었다는 내용을, 둘째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가계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생태 관광에서 얻는 '이득'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에 관한 글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의 1에서는 관광객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첫째, 둘째 유형으로,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듣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자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 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첫째 조건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것은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둘째 조건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열하라는 것이다. ④의

경우, 우선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자연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표현은 '근거'에 해당하고,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해당하며, '정해진 담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이 관광객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서술하도록 한 첫째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관광객의 태도 측면을 다루고 있고(첫째 조건 충족), 그 근거나 주장, 실천 방안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순서도 적절하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②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으나(둘째 조건 충족), 그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첫째 조건 미충족). ③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첫째 조건 미충족),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⑤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첫째 조건 충족), 주장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순서에 어긋나며 주장과 실천 방안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인 '소쇄원'의 유래와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분에서 참고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기> ㄹ의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로 볼 때 <보기> ㄹ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ㄱ의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의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의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는 2문단의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의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2문단의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㉔

**[오답 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미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㉔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㉕

**[오답 피하기]** ① ㉔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㉔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㉔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㉔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㉔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해설 :** '파생어/합성어',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밝히어 적지 않기'를 기준

으로 하여 네 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㉔이다. '무덤'과 '지붕'은 각각 '문- + -엄', '집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문엄, '집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뜰', '쌀알'은 각각 '뒤 + 뜰', '쌀 + 알'의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정답 ㉔

**[오답 피하기]** ㉔에 제시된 '무덤, 지붕, 뒤뜰, 쌀알' 이외에 제시된 단어는 '마중'과 '길이'인데, '마중'은 '맞-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 '길이'는 '길- + -이'의 파생어(명사 또는 부사)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나)에 적용하여 제시된 사례(가)의 표준 발음을 묻고 있다. 제시된 사례는 '꽃이랑(㉔)'과 '꽃오목(㉕)'인데, 전자는 제29항과 후자는 제15항과 관련된다. 먼저, '꽃이랑'은 해당 단어의 뜻풀이를 참조할 때 '꽃 + 이랑'의 합성어이다. 또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이다. 따라서 'ㄴ' 소리를 첨가하여 [꼐니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음으로, '꽃오목'은 '꽃 + 오목'의 구조로, 이때 '오목'은 'ㄱ'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부사)이다. 따라서 '꽃'의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꼬도목]이 표준 발음이다.

정답 ㉔

13.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 유형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㉔로, 주어인 '특징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

정답 ㉔

**[오답 피하기]** ① '구매'와 '구입'의 의미가 중복되어 잘못된 문장이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나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여간하다'는 부정어 앞에 쓰여 '이만저만하거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인데 '연료 효율을 높여 준다.'는 성립하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 준다.'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형언하다'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형용하여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㉔로, ㉔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㉑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㉒ ㉒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㉓ ㉓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㉕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㉖ ㉖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㉑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㉒)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㉑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㉒)이다. ㉒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댁'인데, 전자는 '문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㉒)이다. ㉔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㉕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㉑)이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을 제시한 후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㉑으로, ㉑에서는 종성의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해 ㉓에서는 '어엿비'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답 ㉑**

**[오답 피하기]** ㉑ '수뻐'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인 '뻐'를 확인할 수 있다. ㉒ ㉒의 진술에 의하면, '쁘들'의 'bc'은 'ㅂ'과 'ㄷ'의 두 개의 자음 모두 발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㉔ ㉔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히예'의 '히'에는 방점 '˙'가, '예'에는 방점 '˙'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㉕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하는데, '뿌메'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7-18] 독서 이론의 적용,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지문해설** : 이 글은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이덕무의 글로, 바람직한 독서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수준의 책을 어떤 단계별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런 단계적 독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책을 읽는 바람직한 방법을 오곡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며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며 독서에 관해 본받을 만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 각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 의심이 나는 것을 해결하는 독서법,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글의 끝부분에 '용촌 이광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바람직한 독서법으로 삶을 가꾼 모범적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독서를 큰 가치로 여겼던 당대 선비들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한 노력은 선비들이 거쳐야 하는 수양의 필수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본받아야 할 선인의 올바른 독서 방법

17.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법 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독을 배제하고 다독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글쓴이는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다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세밀하게 읽는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글의 첫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글쓴이는 '사서'는 배움의 첫 단계에서 읽고 '후사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읽어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독서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㉒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이라는 내용은 의문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㉓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

며 읽고, 그 중 그 큰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⑤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식에 대해 겸손할 것과 판단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 18.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연을 담고 있다. 즉, 제목이나 차례, 서문 등을 살핀 후에 책을 결정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훑어 읽는 방법,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며 읽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내용과 <보기>에서 제시한 방대한 정보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의 독서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은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견주어 가며 읽으라는 것이다. 이는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서법이기도 하고 포용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법이기도 하다.

####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으라는 것은 선인의 독서법이나 <보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②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며 읽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책의 서문이나 차례 등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많은 양의 책을 읽을 때 훑어 읽기를 하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차례나 서문을 먼저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정보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많은 현대에서 활용되는 독서법이다.

#### [19~21] 인문,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신 이원론'과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심신 일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입장이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심신 이원론은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상호 작용론'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평행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수 현상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심신 이원론인데, 심신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관계에 대한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의 입장

####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상식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된다는 생각'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동일론(심신 일원론)'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육체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론'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에서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평행론'은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이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행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2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평행론'은 모든 물질적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부수 현상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진술은 '평행론'의 입장일 뿐 '동일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호 작용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보는 '부수 현상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부수 현상론'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과 달의 모양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육체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수 간만)는 ㉠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개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달의 모양)는 ㉠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에 의해 ㉢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가 ㉢의 원인이 되지만, 역으로 ㉢가 ㉠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 [22~25]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2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

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

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6~27] 과학, '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전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향력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 때 위도에 따라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이에 따라 적도 상의 특정 지점(자전 속도 1,600 km/h)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자전 속도 1,400 km/h)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을 때,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지점(북위 30도)은 발사 지점(적도)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 30도(1,400 km/h)에서 북위 60도(800 km/h)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두 지점의 자전 속도 차이만큼 발사된 물체가 동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질 뿐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쪽뿐 아니라 다

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제]**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이유와 그 양상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3문단에서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 또한 북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고, 5문단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이동 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이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전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푸코의 진자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진자의 진동면은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전향력에 의해 진자의 진동면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면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해 보면, ②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져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전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북반구와 반대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남극과 북극의 자전 속력은 동일하게 0이고, 4문단에서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동일하게 최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위도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도의 변화가 없이 적도 상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축에 해당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축은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30] 예술,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에 대한 평가를 소재로 하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이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성이라는 내적인 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청중들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적 담론 등이 담당한 역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 음악에 대해 열광하였는데 이는 순수 기악 음악이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지고지순의 음악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기악곡 음악은 언어로 해석될 수 없는 송고미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졌고, 철학적인 것으로 청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여기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는 독일 비평가들의 평가가 청중들에게 수용되었고, 베토벤이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자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이다.

**[주제]**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바라본 베토벤 신화

##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는 베토벤 신화에 영향을 미친 베토벤의 천재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베토벤이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교향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토벤이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글쓴이는 베토벤 신화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토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 방식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지만,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에게 과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교향곡 3번 '영웅'의 예로 볼 때, 베토벤의 음악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들리는 것은 단순한 모티프를 다양하게 가공함으로써 '복잡성'을 성취해냈기 때문이다. ④ 베토벤은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프로 하면서도 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변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 29.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은 순수 기악에 열광했던 1800년 전후의 빈의 청중들이다. 이들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던 것이다. 즉, 당시 빈의 청중들에게 있어 음악은 언어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예술이었다. 이는 음악을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기를 바랐던 당대 빈 청중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는 베토벤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변주·변형함으로써 청중의 귀에 다채롭게 들리도록 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음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③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음악 그 자체'를 바랄 뿐 가사 등의 음악 외적 요소를 원하지 않았다.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 음악 외적 상황을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면서 가사 등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30. 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는 오페라 작곡가인 로시니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음악의 중심이 '순수 기악이나, 오페라냐'에 따라 음악가에 대한 청중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악을 중심에 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호평과 더불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보기>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판단해 보면, 4문단에 나오는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본 사람이므로 1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빈의 청중들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며 제목,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슐레겔은 빈의 청중들이 그랬듯이 베토벤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호프만은 4문단에 나와있듯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 즉 오페라가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③음악을 '삶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라고 보지 않고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겼다. 4문단의 정보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순수 기악에 대해 열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페라를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스탕달은 로시니를 극찬하는 반면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문에 제시된 베토벤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로시니가 베토벤의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 따르면, 당시의 오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향유된 것이었는데, 음악을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빈의 청중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 [31~34]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평생 은거한 남영로가 1840년경에 지은 소설로서, 자신이 쓴 소설 '옥루몽'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자 소설(夢字小說)의 계보를 집대성한 작품이자 군담계 영웅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보면 가정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뤄 나가는 애정 소설의 특성도 띠고 있어서, 대중적인 재미와 문학적인 품격을 겸비한 고전 소설의 백미로 꼽히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

### 3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처음에는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잠시 잠이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이후는 꿈의 장면으로, 휘황한 천상계의 백옥루가 나타난다. 강남홍은 자신을 인도한 보살을 통해 자신들이 천상계에서 적당한 인물됨을 알게 된 후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꾸고 깨는 사건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천상계라는 환상적 공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장면은 보살이 던지는 석장에 의해 순식간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주로 전지적 서술자의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은 없으며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도 없다. ② 이 글은 꿈을 통해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적당하였음을 보여준 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드러내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꿈의 장면, 꿈 이후 인물들의 대화, 후일담 등이 나타나지만, 인물의 내적 독백은 없으며 난관 극복 의지 또한 인용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⑤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짊고 있다'라는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 3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강남홍은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러 보살을 만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살은 그중의 한 선녀(홍란성)가 바로 강남홍의 전신이라 말하며 그들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하계로 적당하였음을 알 수 준다. 강남홍은 선관과 선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과 재회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는 강남홍의 물음을 통해, 강남홍이 보살을 명산에서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를 통해 보살이 인도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허 부인의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양창곡)을 낳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옥루몽'은 다른 환몽 구조와 달리 속세에서 천상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을 꾸는 것은, 인간계에 적당한 인물이 꿈을 통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속세에서 천상계로의 입몽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은 꿈에서 보살의 도움으로 백옥루를 보게 되고, 백옥루에서 취해 자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천상계에 진입한 것이며 강남홍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 ③ 강남홍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꿈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살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보살이 강남홍을 다시 인간계로 보내는 각몽을 유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허 부인은 연왕을 낳게 해준 돌부처가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보살임을 말하면서 암자를 창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 이후 속세에서의 보답이라 할 수 있다. ⑤ 속세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보기>를 보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양창곡 일가가 천수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았음이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속세에서의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배회하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라는 뜻으로, 이 글의 문맥으로 볼 때는 '돌아다니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어울리며'는 '함께 사귀어 잘 지내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끼여들어 같이 휩싸이며'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지하여'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어'의 의미이다. ② '망연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로'의 의미이므로 '멍하니'는 적절하다. ③ '인도'는 '이끌어 지도함' 또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의 의미이기에, '이끌어'가 적절하다. ④ '휘황한데'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이는데'의 의미이다.

### [35~37] 현대소설 - 이청준, '소문의 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삶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 소설가 박준은 억압된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의식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의 충격에서 비롯된 공포증의 원인을 밝혀낸다. 이 소설은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다. 지문은 김 박사와 '나'가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병적인 증세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과, '나'가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깃불의 실체에 대해 단서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김 박사는 박준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털어 놓게 하려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 반면, '나'는 그의 소설들을 단서로 비밀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김 박사'는 '박준'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에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김 박사'의 해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라는 '김 박사'의 말을 통해 김 박사도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어머니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⑤ '나'는 '전깃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신문지 조각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나'가 실망한 것은 신문 기사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36.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특정 부분이 가지는 서사적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A] 부분은 앞부분에서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둠 속에서 전깃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과거에 전깃불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음을 [A]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A]부분은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우리 고향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곳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일을 고백하는 내용이므로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④ [A] 부분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는 이질적인 시선이 없으며, 역사적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37.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깃불의 공포와 자기가 현재 소설을 쓰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통해 '위험한 질문'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 외상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 박사'는 '박준'이 전깃불의 실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을 털어 놓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박사'가 시도하려는 방법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해 말문 트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박준'은 소설을 쓰면서 전깃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한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자기 진술'을 하면서도 전깃불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이것은 <보기>에서 말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박준'의 외상이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넷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은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자바 권총 이 업스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니 은 곳 허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숲)'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울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계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 더흔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현대시 - 조지훈, '파초우' / 곽재구, '사평역에서'****(가) 조지훈, 파초우**

**작품해설** : 이 시는 자연과 마주 대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화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자연과 교감하는 존재로, '구름'은 이러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저녁 어스름', '푸른 산' 등의 시각 이미지와 '후두기는', '물소리' 등의 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연과 5연은 수미 상관의 기법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2~4연에서는 '싫지 않은',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자연을 그리고 있다. 어디에서도 편안히 쉴 곳 없는 현실에 지친 화자는 자연 앞에서,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소망

**(나) 곽재구, 사평역에서**

**작품해설** : 이 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대합실 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허름한 공간 안에는 툭툭 난로가 지퍼져 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침을 하거나 졸면서 막차를 기다리는 그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주변부 인생이 겪는 서러움과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자연스러운 서술, 반복적 변주의 시상 전개 방식 등으로 주변부 사람들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과 그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41. 작품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어디서 쉴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는 화자로 하여금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모습이다. 빗방울이 넓은 파초잎에 떨어져 후두기는, 매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를 내는 언제나 그리운 자연인 것이다. 한편 (나)의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매우 늦은 시골 대합실에서 툇밥 난로에 불을 쬐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이 눈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름'에게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구름'을 사람에게 비유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도 '흰 보라 수수꽃', '그믐처럼', '단풍잎 같은' 등의 비유가 나타난다. ② (가)와 (나) 모두에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닌 역동적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후두둑 떨어지는'의 의미를 지닌 '후두기는'이라는 시어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이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파초잎에 떨어지는 성긴 빗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에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시어나 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는 것이지만, 이 시에서 '구름'은 화자 자신이기도 하기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4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떠돌고 있다. 화자의 발 닿는 곳은 산과 물, 파초가 있는 자연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러한 화자가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서 '어디메'는 화자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정처 없이 자연을 떠도는 사람으로,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면엔 자신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저녁 어스름 무렵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그러한 배경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소망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산에 대해 창을 열고 마주 앉아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대상이라 말하고 있다. ④ '들어도 싫지 않은'은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을 계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교감이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에서 '눈꽃의 화음'은 힘겨운 삶에 지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재이다.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지금은 모두 그 화음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얼은 몸을 툇밥 난로의 열기로 녹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줌의 눈물'은 <보기>에 나와 있듯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선물이다. 따라서 이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툇밥은 난로의 연료로 추위를 녹이게 하며, '눈물'은 <보기>에서 보듯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통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불을 쬐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한 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이 '그리웠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자신의 눈물을 툇밥 난로에 던지는 것은 그 눈물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기>와 관련해 볼 때 힘든 삶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쓴이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쓴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쓴이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쓴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흥맹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든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도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